



봉우 컬럼

천국에의 소망

30년 가까이 주일마다 나에게 점심을 해주는 권사님이 있다. 오랜 세월 한결같이 나를 위해 봉사해주는 그 분께 나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어느 주일,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 “권사님, 이다음에 천국에 가면 우리 집에 맘대로 들어와요.”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며 “목사님, 제가 왜 목사님 집에 맘대로 들어가요? 나는 천국 가면 목사님과 한 집에서 함께 살 건데요.”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권사님의 말에 깜짝 놀랐다. 나는 나를 도와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이 그 날에 나와 같은 상을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늘 말한다. 그런데 막상 한 집에서 살겠다는 권사님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에 놀랐다.

이 권사님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다들 천국을 피상적으로 생각한다. 죽으면 가는 세상쯤으로 생각하는데, 가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왜 내가 진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못했을까, 왜 더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을까’ 하고 땅을 칠 것이다. 천국은 철저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그곳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곳이다. 눈물과 고통은 없지만, 확실한 신분 차이는 있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간신히 구원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30)는 말씀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천국에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꾸어라. 그날 여러분이 나와 같은 동일한 상을 받기 바란다. 그러니 더욱 열심을 내라. 그날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림은 믿는 자의 특권이다

지식과 실천, 말과 행동,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과정은 인격 성숙의 기본이요, 특히 지도자가 꼭 갖춰야할 덕목이며, 이것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다.

오늘날 지도급인사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다시피 국민의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말과 행동, 곧 거짓과 불법, 탈법을 일삼기 때문이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들이 과학자나 의사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들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목사의 말을 듣지

되어 있는 글이 아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다.

백번 양보해서 예수께서 단지 우리를 죽음 다음의 세계, 곧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만 이루기 위해 죽으셨다 해도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지경이라 해도 이생을 떠나는 날에는 현재의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다음의 세상만 위함이 아니요, 오늘 지금 이 땅에 살며 우리 앞에 닥치는 모

임 받게 함이고, 그가 찢리고 상한 것은 그를 믿는 자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결 받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연고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



병어리 소녀가 교침받은 멕시코 카르데나스 집회

않는가? 목사가 증거하는 성경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며 보여주는 목회를 하셨다. 나 역시 이 말씀에 입각하여 세계 어디를 가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왔다. 나는 단에 설 때 ‘오늘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사요,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한다.’고 담대히 외쳐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믿음의 말에 그대로 역사해주셨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

된 문제들로부터도 해결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할 말을 잃는 것이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 곧 예수께서 가난하게 오신 것은 그를 믿는 자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려 하심이고,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그를 믿는 자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함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를 믿는 자로 병에서 놓

답을 받을 수 없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애쓰고 수고했다 하여도 가을의 결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면 결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비가 멈추기를 기도했으면 비가 멈출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기다림은 믿는 자의 특권이기에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8).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5:12~19)

꿈이 없으면 의욕도 없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아니요, 그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바로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매사 의욕이 없기에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목적의식이요, 목표입니다. '무언가 되어보겠다, 뭔가 이뤄보겠다, 뭔가 성취해보겠다, 어디까지 올라가보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꿈이 없습니다.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꿈이냐', '나는 꿈꿀 주제가 아니다', '꿈꾼다고 다 되냐?' 하면서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꿈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포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삶에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꿈이 바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좋고, 많이 가졌다고 꿈을 쉽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꿈이란 누구에게나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에 꿈을 꿀 당시에는 까마득히 느껴집니다.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느냐에 따라 그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꼭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예수를 목청껏 불러 소원을 이뤘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예수님 앞에 어찌 소경이 바디매오 한 사람 뿐이었겠습니까만 바디매오가 다른 소경과 다른 것은 바로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의욕을 불태워 마침내 소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막10:46~52).

꿈과 희망은 당신을 버린 적이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 만나면 딸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의 면전에 대고 "개 같은 여자여, 어딜 감히!"(막7:27) 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발로 뭉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개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내 딸만 고쳐주십시오."(막7:28)라고 했더니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고, 소원을 이뤄주셨습니다(마15:28).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가 달리고, 자존심이 밝혀도 목적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 분은 인류구원, 곧 저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 역시 원한을 풀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고(눅18:1~8),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하여 떡을 강청한 사람 역시 자존심을 버려 목적을 이뤘습니다(눅11:5~8). '과정은 결과를 대변할 수 없지만, 결과는 과정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목적 앞에 자존심 따위는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쉽게 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난항에 부딪치면 더욱 의욕을 불태웁니다. 야곱의 목적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여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금의환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일해도 지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를 악조건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었고, 그에게서 초능력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꿈은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꼭 이루고야 말겠다, 기필코 그리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쉽게 이뤄졌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벧엘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계속 '가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승천까지 지켜보며 그의 곁을 끝까지 사수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의 빈자리를 승계했습니다(왕하2:1~14). 12년 동안 혈투증을 앓던 여인이나 반드시 전쟁에 이

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던 입다, 꼭 아들을 얻고야 말겠다던 기도한 한나, 이 모두 꿈을 포기하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에게 역경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들은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일어나 마침내 소원하던 것을 이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요즘 대선주자들을 보세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존심을 버리고 한 표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의식, 꿈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꿈을

지세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노력하고, 달려보세요. 분명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하고 귀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소망이며, 거기에 예비된 상과 면류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꿈이고, 산 소망이며, 영원한 영생의 소망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1:3~4). 만일 우리가 이생뿐이라면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고전15:19). 남들처럼 우리가 주일에 쉬기를 합니까? 남들처럼 세상 풍류를 즐기기를 합니까? 절제하고 애쓰고 힘써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날에 대한 소망,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쯤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기에 이 꿈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달리는 것입니다(롬8:18).

이 소망을 이루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나와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그 날에 받을 상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전파의 열망을 꺾지 않은 것처럼(빌3:14), 우리도 세상 유혹을 이기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어 주의 일을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8).

꿈이 없는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세요. 그 날에 반드시 일한 대로 보상을 받습니다(계22:12). 그래서 늘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만나는 세상에서 멋지게 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날의 상과 면류관에 대한 꿈이 있기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길을 깨끗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곧 옵니다. 그 날에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더욱 주를 위해 열심을 낼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의 꿈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의식이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세의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왕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8:24).

목적의식, 꿈은 인생의 나침반임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달에 어머니께서 TV가 고장 나 심심하다며 가까이에 사는 누님 댁에 가신다고 나가셨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해마다 길거리에 앉아 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파출소로 인도해 주셔서 집으로 연락이 왔다. 어머니께서 집주소도 모르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아들이 이초석 목사요.” 라고 했더니 즉시 찾아 교회를 통해 연락이 온 것이다. 며칠 후에 노인케어센터에 가셨다가 그만 변을 옷에 지르셨는지 복지사가 젖은 바지를 검은 비닐봉지에 싸고 다른 바지를 입고 오셨다. 두 사건을 통해 어머니는 크게 낙심하셔서 코가 빠지시고 여러 가지 상심에 빠지신 듯싶더니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빠지셨다. 주일성수를 안 하신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조금 걱정이 되어 어머니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어머니를 모시기는 했어도 어머니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하신다. 깜짝 놀라 돌이켜보니 정말 그런 거 같다. 자식 된 도리로 모시기는 했지만 늘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모자(母子)라는 관계 속에 함께 있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온 듯하다.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어머니를 사랑으로 모셔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으로 ‘내가 예수님도 모시고는 있으나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다. 혹시 ‘첫사랑은 다 잊고 일만 열심히 하는 에베소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돌아보았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설교도 잘하고 심방도 잘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근본을 잊고 일만 남은 거 아닌가. 내 열심으로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아닌가, 겉껍질만 남아있지 않나, 목사라는 허울만 뒤집어쓰고 다닌 것 아닌가’ 깊이 되돌아보았다.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2장 21~22절에 ‘나와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일하지만 저희는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구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부부 간에도 사랑은 식어가고 관계만 남아 있을 수 있다.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니까 어느덧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사랑의 자리에 대신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 메마르고 냉랭하고 고달픈 관계와 일만 남은 가정, 부모와 자녀관계도, 목사와 성도관계도,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형제와 가족도, 목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1~3).

이시대 목사

:: 성경예세이 ::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여보게! 나는 요즘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전념하고 있네.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또한 ‘어지러운 때를 틈타 혹시 북한이 도발이나 하지 않을까’ 해서 늘 기도하고 있네. 그러다 어느 새벽에 이 잠언의 말씀을 받았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잠28:2). 사실 나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네. 그런데 받고 보니 정말 우리나라 현실과 똑떨어지는 말씀이지 뭐냐. 요새 우리나라에 주관자가 너무 많네. 다들 목소리를 높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지. 그러나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네. 다들 주관자가 되면 어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사공은 한 사람이면 족하네. 그가 방향을 잡아가야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공은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그래야 배에 탄 사람들이 편하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야. 바람은 바꿀 수 없지만 항로나 수로는 수장이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하

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으니 지금이 바로 그 때가 아닐까 싶네. 느헤미야와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어야 하네. 정치를 직업인양 뛰는 정치인 말고, 사리사욕이나 채우려는 자 말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네. 여보게!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너도나도 소리치면 이 나라가 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짜우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네. 너무나 산재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지 않은가. 이 나라를 위해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애국이야. 지금 우리에게 오직 기도밖에 없네.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직한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불어 이 혼란기를 틈타 북한의 침략이 없기를 기도해야 하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말일

朋友

공짜에는 독이 있다

백성을 사랑하는 한 왕이 현자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하였다. 현자들은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12권의 책을 만들었다. 책을 받아든 왕은 너무나도 좋은 내용에 매우 흡족했으나, 너무 많은 분량에 백성들이 읽지 않을까 걱정되어 더욱 간략하게 줄여보라고 말했다. 현자들은 그것을 한권으로 축약해서 가져왔다. 그러나 줄여오라는 왕의 거듭되는 명령에 다시 한 장으로, 그리고 결국 한 문장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다. 미국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디언들에게 무엇이든 공짜로 준다고 공약했다. 먹는 것, 공부하는 것, 병원에 가는 것 등, 그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은 공짜였다. 그 결과 인디언들은 무기력자, 알코올중독자, 성병환자 등이 되어 멸족의 위험까지 왔다고 한다. 스웨덴은 보험으로 모두가 공짜라서 지상 낙원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은 10대 범죄와 이혼율, 마약이 세계 최고이고, 교회 출석률이 제일 저조하

며,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다. 공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라고 하시며 공짜는 독약과 같다고 교훈하신다.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거저 얻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대가로 얻는 것임을 잊지 말자. 그 주님은 말씀하신다. 공짜는 없다. 대접받으려면 대접하라, 용서받으려면 용서하고 사랑받으려면 사랑하라. 행한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행16:31),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계2:10), “주라 그리하면”(눅6:38), “구하라 그리하면”(마7:7),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출20:12)....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것이다. 대가 없이 얻는 것에는 독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예배를 돕는 방송장비,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음향기기 임대 및 음향·영상기기 설치
나현정 집사 010-6494-0688

:: 귀를 기울이세요 ::

배려는 사랑

지난 주 회사 근처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옆에 초록색 천과 큰 기둥을 발견하였는데, 필자는 그것이 궁금하여 알아보니 그것은 바로, 구청에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대형 파라솔이었다. 이 파라솔은 횡단보도나 사거리에서 구민들이 신호를 대기할 때 조금이나마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으로 햇빛가리개 그늘막이자 비가 오면 비를 피하기 위한 공간이 되었다. 작년, 기록적인 폭염에 지역구민들이 땀병에서 신호를 대기할 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구청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설치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즘 버스정류장 의자에 휴대폰 무선충전기와 USB포트가 설치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태양열전기를 이용한 스마트폰 충전기였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여 배터리 충전이 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다. 지난 2월, 내가 속한 부서의 우리 팀에서 당일치기 MT를 가게 되었다. 본인이 최고참 리더인지라 나보다 어린 팀원들을 보호하고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전날부터 잠을 설쳤고, 당일도 이리

상당히 지쳐있었다. 그러다 장소 이동 중, 잠시 차에서 깜빡 졸게 되었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목이 거의 꺾일 정도로 숙이고 졸았나 보다. 그때 우리 팀의 막내팀원이 나에게 자신의 겹옷을 벗어 베개를 만들어주며 ‘팀장님, 이거 기대고 주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목이 아파요.’라고 말했다. 이 막내팀원의 작지만 따뜻한 배려에 너무나 감사했다. 구에서 만든 파라솔 그늘막과 정류장 의자 휴대폰 충전기는 비록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다른 어떤 행정업무보다 기억되었다. 또, 우리 막내 팀원의 배려 깊은 행동은 지금도 마음 속 깊숙이 남아있고 그를 위해 더욱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다. ‘배려, 配(짝 배), 慮(생각할 려)’란 짝처럼 남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배려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도 실천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다. 배려의 다른 이름은 ‘사랑’임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참 크리스천이 되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엄마와 함께 미국을 다녀왔다. 목적지는 로스앤젤레스.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다는 곳이었다. 낮설고 물선 동네일거라 생각하고 잔뜩 긴장을 하고 갔지만, 도착한 첫날 한국 스타일의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고, 한국인이 점원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실컷 아이쇼핑을 하는 동안 긴장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시간이 갈수록 낯선 곳이라는 생각은 사라져갔다. LA의 주차방식은 자율이었다. 주차를 한 뒤, 주차등록기에 가서 내가 정한 시간만큼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그 영수증을 차 안에 두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기로 곧장 달려가 영수증부터 챙기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여기가 미국인지 옆 동네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즈음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우연히 들른 바닷가가 너무 근사하였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 옆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정도 되지 않을까? 큰 항구가 있는 롱비치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실비치(seal beach)라는 곳이

었다. 너무나 예쁜 풍경에 우리는 차를 타고는 곧장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왔는데 웬걸, 차 유리에 딱하니 주차위반 딱지가 쫓혀 있었다. 카페에 들어갈 때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하듯 아무데나 주차를 스윽 하고 들어갔던 것이 문제였다. 다시 보니 차 앞에 주차등록기가 있었고, 2시간에 3\$을 내면 그만이었다. 예쁜 풍광에 정신이 팔려 3\$이면 될 주차요금을 48\$의 벌금으로 내게 되었다. 사실 주차를 할 때마다 이곳저곳에 있는 주차등록기를 보면서 사람도 없고, 주차기만 있는 이곳에 ‘잠깐 주차하고 그냥 나가면 누가 아냐?’라는 생각을 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도 주차요금을 지불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그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비싼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벌금을 지불하며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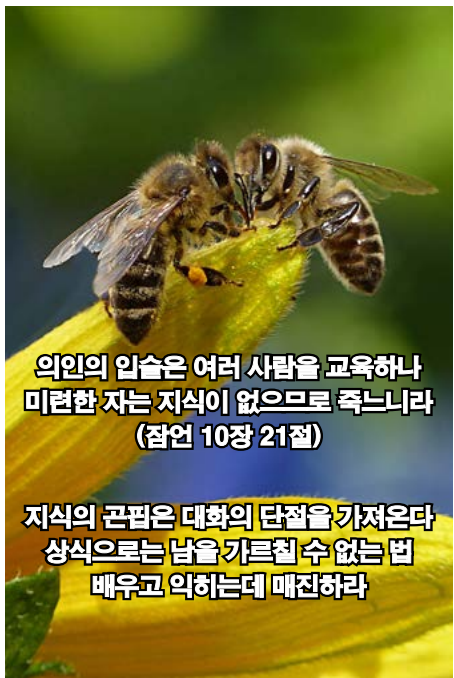
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다고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힘들고 슬플 때는 내 곁에 있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실 거라는 생각은 안하기 때문이다. 가끔은 잠깐 다른 곳을 보고 계실 거라는 용감한 믿음(?)이 생길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주님은 분초 단위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몰래 주차한 차를 찾아내 벌금을 물리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꽃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나는 이 당연하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저 멀리 미국 땅에서 물린 벌금 48\$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주님의 동행하심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시139:2).

전훈지
ppjee@hanmail.net

절대 긍정의 힘!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스 왕의 이름에서 나온 말로서, 어떤 한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기대를 하면 그 사람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실제로 상대방의 기대치에 다다른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64년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하버드대 교수)과 20년 이상 초등학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이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한 뒤 무작위로 20%를 뽑은 후 교사들에게 명단을 건네면서 지적능력과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올라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실하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교사들이 교육학자의 말을 믿고 ‘이 학생은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정성껏 돌보고 칭찬한 결과라고 하는데, 이를 ‘긍정적 기대감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로젠탈효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름지기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효과’를 극대화하는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의 이론을 뒤집어본다면 부정적 기대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줘서 그들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칭찬이 다다익선은 아닐 것입니다. 칭찬과 주의는 8:2의 비율이 적당한 배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절한 칭찬 한 마디가 시인도 만들고, 과학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성실함도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니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마음껏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 현명한 사냥꾼은 여유롭게 사냥개의 도움을 받아 즐기며 사냥한다

A wise hunter enjoys hunting by getting help from the hounds.
明智의猎人在猎狗的帮助下从容自若地打猎。

✿ 여유는 삶의 지혜다

Having margines, is the wisdom of one's life.
有余就是人生的智慧。

:: Global Study ::

:: 생활속의 잠언 ::

믿음은 바람의 실상

이십 여 년 전, 당뇨라는 질병이 생겼다.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기에 당연히 몸에서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많이 맛난 것을 찾아먹고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환자라는 생각 없이 십여 년을 살았다. 합병증이 무섭다는 당뇨였음에도 ‘합병증이 뭐야?’라는 기고만장한 자세로 살았다. 어느 날 문득 산책을 하는데 눈에 날파리가 웅웅거리며 따라다녔다. 그러려니 하다가 안과를 찾았다. 망막변성의 초기증상이라고 망막응고술이라는 레이저 수술을 무려 열여덟 번을 받았다. 그건 눈이 실명되어가는 징조였다. 그래도, 아니 그런 척 씩씩하게 하루 수 시간 근무를 하면서 눈의 소중함은 잊고 살려고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기야 앞이 뿌옇게 흐려오고 사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덜컥 겁이 났다. 실명의 위기를 겪은 어느 목사님의 글이 기억났다. 나는 그분처럼 못 살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죽기로 작정했고 죽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절망의 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찾아간 의사 선생님께서 지극정성으로 양쪽 유리체 수술을 해주셨고, 덕분에 위기의 상황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녹내장과 백내장 등 눈질환은 쉴 틈 없이 나를 몰아쳤다.

얼마 전 또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망막 단층 촬영을 하고 난 후 나는 또 한 번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다. 망막천공의 위험이 나타난 것이다. ‘아~!!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울면서 수일을 기도했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식구들이 눈물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해주셨다. ‘그래, 악한 마귀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마음과 주님은 나를 절대로 눈먼 고아로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눈에 있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하고 싶은 것은 끝내 다하면서 살았다. 미국 대륙횡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도 다녀오고, 일본의 벚꽃은 얼마나 예쁜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일본도 다녀왔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나간 친구를 격려, 응원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도 다녀왔다. 어느 곳을 가던지 매일 아침마다 간구의 기도 줄은 놓치지 않았다. 그간 하나님은 2명 남은 학원에 기적을 일으켜 죽어가던 사업장을 일으키셨다. 내 사업터와 내 가족에게 시시각각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아~ 주님은 절대 나의 눈을 앗아가시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책장 위의 글이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았지만,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더욱 간

절히 내 모든 것을 전달해주면서 살았다. 주님은 내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보여 주셨다. 2개월마다 있는 정기검진을 지난주에 다녀왔다. 촬영결과를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신다. 선생님께서 언제 끊어질지 몰랐던 이전의 망막 사진과 그날 촬영한 망막 사진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셨다. 움푹 파여서 곧 끊어질 것 같았던 망막주위에 도통하게 신경과 근육이 차올라 메워져 있었다. “와! 신기하다.”라는 가족들과 의사 선생님의 반응에 “주님의 은혜와 의사 선생님의 지극하신 보살핌 덕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선생님과 가족들을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주님께서는 절대 나의 시력을 앗아가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이 안 보여 걸을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를 썼었다.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 육신의 건강과 부요와 평안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